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완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총 10개 장르 공모 360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학, 시각, 공연, 다원분야 등 총 10개 장르 공모에 1,046건이 접수, 행정심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360건을 선정했다.

특히 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운영과 변화하는 예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예술가·예술단체의 의견을 모아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모체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적으로 다양한 장르, 세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했다. 또한 타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부서 내 전략회의를 가동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단체 분리 공모·심사 △예술인권익보호를 위한 개인 창작활동비 인정 △장예인(단체) 가점제 확대 △젊은예술 분리 공모 △지원 불가 자격 강화 등이 있다.

이 사업이 지난해 비해 지원 건수는 79건 감소했으나, 선정 건수는 19건 증가해 작년보다 4.1% 높은 총 360건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청년예술창작지원을 젊은 예술지원으로 전환해 최종 50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도 개인 및 단체에서 개인으로 집중해 청년 예술가 개인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했다.

이 사업의 선정 심사는 재단 내 공모사업 운영내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심사위원수의 3배수 후보군에서 지역, 성별, 지원 여부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최종 선정된 분야별 5~7명의 위원이 선정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다. 특히 올해는 심사위원 수를 최저 3명에서 5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신청 건수 100건 이상 장르 및 젊은 예술 분야는 사전 전수검토제를 운영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최근 지역 인구수 감소, 청년예술가 지역이탈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매해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예술인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아쉽다”면서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는 물론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도내 예술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창작지원팀(063-230-7404, 744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은 지난 8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5기 부안군립농악단 단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5기 부안군립농악단 단원 위촉식 가져

부안군은 지난 8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기존 단원 실기평가와 신규 단원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제5기 부안군립농악단 단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단원은 29명(부단장 1명, 사무장 1명, 일반단원 27명)으로 위촉기간은 2년이다. 기존 단원(23명)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실기평가를 실시해 22명이 합격했으며 신규 단원들은 지난 2월 모집공고를 내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격한 면접전형과 실기전형을 통해

5명이 최종 선발됐다.

지난 2016년 창단한 부안군립농악단은 부안농악의 역사와 정체성을 토대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전통 농악을 보전 계승하기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관악현 부안군은 “제5기 부안군립농악단은 개인 역량이 뛰어난 단원들로 구성됐다”며 “정기연습 및 교육, 수시 공연,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지역의 대표 문화공연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부안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격려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8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상반기 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군산대학교,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이노케이(주) 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석, 새일센터 사업운영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여성새일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

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새일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된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기업의 직장문화개선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유망직종 및 신기술 응용분야 고부가가치 교육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여성일자



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일센터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팸투어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7일 아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호텔스컴바인 등 대형 여행 플랫폼 12개사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이번 팸투어는 전당의 주요 사업과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사들에게 전통문화 주제의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국비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

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2024년 국비직업교육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과목은 △바이오식품산업 품질관리자(고부가가치) △공동주택사무원(기업맞춤) △4차산업진로체험지도사(창업) △보건의료서비스전문가 △스마트토달공예지도사(창업)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기업맞춤) 등 총 6개다.

이에 따르면 먼저 바이오식품산업 품질관리자 양성과정은 미래유망분야 특화 직업교육훈련 운영분야 공모에 선정, 이·공계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HACCP법정교육 및 식품기업직무분석을 토대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배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사무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전문가 과정은 올해 신규 운영하는 과정으로, 공동주택 사무원 양성교육은 공동주택시스템과 회계관

리, 민원응대 등의 내용을 토대로 관리소 ERP 운영사 자격 취득 및 맞춤형실습으로 진행한다. 보건의료서비스전문가 과정은 유희간호조무사 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자신감회복 프로그램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춘 디지털 활용방법, 고객응대 서비스 등의 업무항상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외에 창업과정으로 4차산업진로체험지도사와 스마트토달공예지도사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가와 체험지도사, 방과후강사 등을 양성한다.

전정희 원장은 “올해 직업교육훈련은 고부가가치분야 및 기업맞춤, 창업과정 등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는 만큼, 자신감을 회복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많은 취업희망 여성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취업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개최

4월 5일까지 접수... 예선 거쳐 5월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본선 진행

남원시에서는 춘향제 사전 행사로 자리매김한 제8회 전국시니어춘향 선발대회를 오는 5월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주제적이고 생생적인 신 노년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년기에 위촉된 자아 실현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올해는 글로벌과 시니어를 결합해 색다른 모습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가 대상 기준을 기존 60세 이상(1964.5.3.이전 출생) 여성에서 50세 이상(1974.5.3.이전 출생) 외국인 여성과 다문화 여성까지 확대했으며, 내면의 미를 중요시하며 지역사회 공헌도(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에 높은 배점을 했던 기존 서류심사 기준을 올해에는 에세이 접수(삶의 감동적 이야기)에 높은 배점을 주어 다양한 직업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11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26일간으로, 4월 9일 예선 심사를 거쳐 5월 3일 본선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활



동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전국시니어춘향 선발대회는 인생의 지혜와 삶의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멋진 자리”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